MERITZ 메리츠종금증권

Issue Comment

2019. 4.15

음식료

위클리 및 종목 코멘트

음식료

Analyst **김정욱**
02. 6098-6689
6414@meritz.co.kr

RA **최윤희**
02. 6098-6657
yoonhee.choi@meritz.co.kr

음식료 Weekly

메리츠 음식료 김정욱 (6414@meritz.co.kr)

1. 전주 동향

음식료

4월 둘째 주 음식료(식품, 음료, 담배) 주가는 전주 대비 1.3% 상승. 원/달러 환율은 1,139.5원으로 상승. 곡물가는 옥수수(-0.4% WoW), 소맥(-0.7% WoW), 대두(-0.4% WoW), 원당(+0.1% WoW) 기록. 옥수수는 월 WASDE의 미국 옥수수 수출 부진을 근거로 기말 재고량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 남미 및 우크라이나 옥수수 생산량 증대로 인해 미국산 옥수수 수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주 대비 약보합. 소맥은 WASDE 보고서의 18/19시즌 글로벌 소맥 기말 재고량 상향 조정치가 발표되며 가격 하락, 주 후반 미국 평원 및 중서부 지역의 눈보라 기상 소식이 전해지며 일부 매수세 유입으로 가격 소폭 상승했으나 약세 흐름을 전환시키기엔 부족. 저조한 주간 미국 수출 판매 실적과 남미 대두 수율 향상의 무게에 가격 전주 대비 약세. 원당은 엘리뇨 심화 가능성에 따른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기상 우려로 가격 상승. 다만 브라질 헤알화 약세 및 19/20시즌 생산량의 증가가 예상되며 일부 상승폭 반납

중국 라이신 제조업체 원재료 가격 부담이 완화됐으나 시장 가격이 비용 절감분보다 크게 하락한 상황으로 제조업체 생산 마진 압박 중. 국내 수요가 매우 부진한 상태로 생산 실적은 수출에 달려있는 상황. 메티오닌은 4/10일 싱가폴, 말레이시아, 일본의 수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착수되며 가격 10% 이상 급등. 위 3개국의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77%를 차지해 시장에 영향이 작지 않음. 단기간 중국 시장 메티오닌 공급은 타이트해지며 가격 강세 예상. 에보닉은 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 최근 2018년 실적은 전년 대비 4% 이상 성장하며 불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강한 성장세 유지. 쓰레오닌은 시장 약세 기조가 장기화되며 현재는 바닥 시그널 발생. 최근 미래 수요가 가격에 선반영되며 상승했으나, 제조업체의 공급 과잉 심화가 예상되며 가격 하락세 전환. 트립토판 향후 생산 캐파 증가가 예상되며 가격 약세 기조는 유지 전망

국내 이벤트는 1.(풀무원) 19년 동물복지 달걀 매출 300억원대로 대폭 확대 계획. 18년 식용란 전체 매출은 1,000억원 수준, 매출 비중을 30%까지 확대 목표 2.(아프리카돼지열병) 중국에서의 발병 이후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으로 급속히 확산 중 3.(오비맥주) 21년까지 연구개발과 설비 확충, 영업/마케팅 등을 위해 1조원을 투자하는 재정 계획 수립 4.(신세계푸드) 인수 이후 3년간 누적된 스무디킹 적자에 가맹점 비중 기존 76% → 90%까지 확대 방안 추진 5.(맥주)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가격 인상 결정까지는 상당 시일 걸릴 것으로 전망

2. 금주 전망

음식료 섹터 의견 Overweight 유지, 19년 음식료 영업이익 전년비 13.3 성장하며 KOSPI 영업이익 전년비 18.1 감소 대비 우수한 상대성과 예상. 음식료 1Q19 실적은 종목별 혼조세 예상

1Q19 실적흐름 종목별로 상이 대형주는 KTNG, 오리온, CJ제일제당 순서로 선호, KTNG는 수출 증가 전환이 주가 모멘텀을 작용할 전망이며, 국내 담배는 점유율 확대 지속/5~6월 출시 예정인 쥴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오리온은 1~2월 실적 예상치 하회로 1분기 컨센서스 하회 예상, CJ제일제당은 가공식품 수익성, 해외바이오 판가 부진으로 1분기 컨센서스 하회 예상. 쉬완스 인수 지연으로 기대보다는 우려감 지속. 오리온, CJ제일제당 주가 상승 모멘텀은 하반기로 지연. 중형주는 CJ프레시웨이, 하이트진로, 삼양식품, 매일유업, 대상 선호. CJ프레시웨이는 식자재유통 가격 인상효과 지속, 급식 신규수주 효과로 19년 연간 매출액/영업이익 성장 흐름 지속. 식재유통 가격 인상으로 구조조적인 헤게모니 강화 판단. 1분기 실적은 전년수준 유지가 예상되지만 급식 비중 확대에 따른 믹스 변화 효과 2~4분기 영업이익 증가 기대감 확대될 전망. 하이트진로 신제품 테라 첫 달 판매량 100만 상자 예상. 필라이트 첫 달 16만 상자, 하이트 평월 370만 상자 대비 우수한 초기 성과. 온라인 채널에서의 소비자 반응 및 관심도 지속 확대 중. 4월중 발표될 주세개편안과 하반기 기대되는 가격인상 가능성은 추가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판단. 삼양식품은 중국 오프라인 채널 주요도시의 대형마트와 편의점 불닭볶음면 입점 양호한 상황. 3~4월 유베이 수출 물량 본격 증가 예상. 매일유업 분유 수출 두 자리 수 지속 및 19년은 국내 조제분유 매출 감소분을 수출 증가로 상쇄 예상. 대상은 베스트코 흡수 합병 효과와 국내 판관비 관리 효과로 실적 성장흐름 이어질 전망

3. 관심종목 & 종목 코멘트

관심종목

하이트진로 (000080)

1Q19 일회성 요인들로 실적 부진 예상되지만 단기 실적 보다는 구조적 변화 여부에 주목할 시기로 판단. 1) 신제품 효과, 2) 가격인상, 3) 주세개편 등. 신제품 테라 초기 성과는 6~7월 까지의 판매 집계를 통해 확인 가능할 전망. 출시 첫해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점유율은 전국 기준 5% 달성 여부로 예상. OB맥주의 선제적인 가격 인상으로 주류 가격 인상 가능성 확대, 주세개편은 인지도 낮은 저가 수입맥주의 확산에 제동 요인으로 실적 부진을 상쇄하는 긍정 적인 요인들 확보

CJ프레시웨이 (051500)

1Q19 실적은 매출액 5~7% 성장, 영업이익 전년 수준 유지 예상. 식자재 유통은 가격인상 + 디마케팅, 단체급식은 신규수주+가격인상으로 수익성 개선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급식 비중 확대로 계절적 비수기 영향 심화. 비수기와 성수기의 실적 차이 커지며 2분기 이후 전년비 증익 흐름 본격화 전망. 믹스 변화에 따른 수익성 시점 차이 인점을 감안하면 1Q19 60억원 내외의 영업이익 달성에도 19년 성장 흐름에 대한 전망 지속. 외식/급식 식자재유통은 식자재 유통 시장의 업황 부진 환경에서, 디마케팅은 저마진 거래처와 부실 거래처 중심 진행. 저마진 거래처는 가격 인상으로 마진율 정상화 노력, 부실 거래처는 채권관련 사고 선제적 대응. 1차 도매 및 유통은 CJ제일제당 向 매출액 18년 2,000억원대 규모로 성장, HMR 매출액 성장세 20~30%와 성장흐름 동행. 프레시원은 디마케팅 작업과 공통 비용 절감 노력 지속으로 수익성 개선에 집중. 분점확대 효과로 법인별 외형성장은 지속

Compliance Notice

동 자료는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과 계열회사의 관계가 없으며 2019년 4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유가증권(DR, CB, IPO, 시장조성 등) 발행 관련하여 지난 6개월 간 주간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2019년 4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는 2019년 4월 15일 현재 동 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김정욱,최윤희)

동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